| 현불 논단 |

이념 논쟁과 中道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최근 한국사회 이념논쟁 난무
논의 양상이 사회병리학 수준
이념갈등 최대 피해자 '한국'

특정 이념 대한 맹목적 신봉은
배타적 적대감 · 공격성 가져와

고정불변한 이념은 절대 없다
이념, 연기법 적용 대표 사례
연기적 접근이 독선 배제시켜
붓다 정치철학 핵심은 '중도'

우리 사회에 또다시 이념논쟁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다. 아마도 지구촌에서 한국의 정치사회만큼 이념 논쟁이 가열된 곳도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념 논의의 양상은 일종의 사회정신병리학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 지평을 축소시키고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원인은 서구 정치사상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이미 잉태되었다. 일제하 독립투쟁기에도 좌우 이념 갈등이 있었고, 해방 후 우리나라는 이데올로기로 분단되고,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적으로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분단체제를 내면화하고 분단의식의 고착화를 가중시켰다.

인간은 사회라는 제2의 모태 안에서 가치 체계를 세워나간다. 여기에 정치적 함의가 내포된 가치체계를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케 하는 관념체계를 제공하고, 개인 및 집단에게 행동과 판단의 처방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데올로기적 존재이다. 인간의 사회적 삶은 이렇게 이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어쩌랴. 이념은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손에 있으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된다.

지구촌의 근현대사에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많았던가. 20세기에 이념적 갈등으로 희생된 사람이 1억 명에 가깝다고 하던가? 당장 우리 민족이 그 대표적인 희생물의 하나이다.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이 절대화된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세뇌되거나 조종되었을 경우, 자기 도그마에 빠지게 되고 다른 이념의 신봉자에 대해 배타적 적대감과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념은 사람과 사회를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비극이 있다. 이념을 무서운 흉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을 인간학적 측면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념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념을 창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요구된다. 참으로 신기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지혜는 바로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에 이미 나와 있다.

이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화한다. 고정불변의 이념은 없다. 자유주의는 근대 정치사상사에서 진보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보수주의의 대표적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념은 연기법(緣起法)이 적용되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대 정치이념의 제일 큰 요소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용어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뜻을 내포하는 연기적 용어이다. 이념의 역기능은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현실 자체를 동일시하는 물화(物化)의 함정에 빠질 때 제일 많이 나타난다. 현실을 추상화시킨 것이 용어인데, 이 용어의 안경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논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사로잡혀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는 각종 이념적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붓다가 열반에 드실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연꽃의 의미를 미소로서 화답한 '염화시중'을 상기하게 된다. 언어의 노예가 되면 이념의 노예가 된다.

이념을 연기법으로 접근할 때 이념의 독선과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이념에 있어 중도는 가운데가 아니라 양극단을 잡고 더 높은 어느 곳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니라. 붓다의 정치철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바로 중정(中正)의 정치철학이다. 이것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여행지서 지구 살리는 방법

'Save Our Planet.(우리 별을 구하자)' SF영화에 나옴직한 이 문구를 만난 건 몇 년 전 미국 여행에서였다. 아들과 함께 뉴욕에 도착했던 날, 호텔 숙소 테이블 위에 그 팻말은 놓여 있었다.

그 팻말에는 침대 시트를 세탁하는데 들어가는 세제 · 물 · 전기 등을 아껴 우리의 지구를 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2박 이상의 경우 시트를 갈지 않아도 된다면 그 신호로 팻말을 침대 위에 올려놓아 달라고 적혀 있었다.

그 팻말을 읽으며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내내 들었던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무더운 미국 서부의 날씨에도 호텔 방을 차갑게 식혀 주었던 에어컨과 하루를 쓰고 벗겨져 나가는 침대 시트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세상이 넓다'는 생각은 했어도 미국은 정말 넓었고, 그 너른 땅만큼이나 사람도 많고 엄청난 양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호텔이나 버스는 대부분 창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오로지 에어컨으로 환기와 냉방을 해결하고 있었기에 선택의 여지없이 에어컨을 켜 놓아야 했다. 게다가 하룻밤만 묵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 교체되는 침대 시트를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여행 동안 세상의 많고 많은 호텔이 이와 다르지 않겠지 싶으니 지구가 파괴되어 가는 속도를 보는 듯 아찔하기도 했다.

무감각하게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도 있다는 걸 절감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우리별을 구하자'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제안인가!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하는 동안 누리는 쾌적함과 편리함에는 대가를 지불한다. 보송보송하고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건조하고 차갑게 식혀진 공기, 여행사에서 제공되는 생수, 이런 것들은 여행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누리는 쾌적함이 내내 편치 않았다. 내가 지불한 요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만 같았다.

요세미티, 그랜드 캐니언, 광활한 모하비 사막 같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햇살, 바람을 제공해 주고 있는 지구에게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나마 자신을 위안할 수 있었던 건 여행 내내 일회용품 대신 준비해 간 치약과 칫솔을 사용하고 EM비누로 샤워를 했다는 것 정도였다.

'Save Our Planet'이라는 팻말을 세상 모든 호텔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이라도 덜 지구를 괴롭히며 여행하는 방법을 다 함께 찾아 나갈 수는 없을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찾아보니 세계 곳곳에 친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있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9개의 지렁이 사육장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도 있었다.

세상은 정말로 넓다. 그 너른 세상은 지구의 품 안이다. 지구별 마당을 소박하고 정갈하게 거니는 여행객으로 지구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는 끼치지는 않아야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韓日불교, 환경운동 실천 나서자

전 세계적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전개되면서 일상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친(親)환경을 넘어선 '필(必)환경'이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일본불교계와 환경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본불교교류협의회가 최근 일본 홋카이도 중앙사에서 개최한 제39차 교류대회에서 '환경문제와 불교의 관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교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던 양국 불교계가 최근 사회 화두로 떠오른 환경을 대회 주제로 삼은 것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불교계는 대회에서 방사능과 지진, 호우 등의 재해를 겪으면서 환경문제 해결에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불교계 역시 불교가 '숲의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연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실천안 수립이다. 단순히 양국 불교계의 환경문제 논의가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불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환경문제가 개개인의 생활양식에서 비롯되듯이 개개인이 모여 이룬 종교계가 환경운동을 펼친다면 풀뿌리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행공동체는 새 불교의 씨앗

수행공동체가 공동체 형성에서 더 나아가 마을까지 만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부대중 공동체 행복한마을이 6월 30일 새로운 공동체 시설 '심검당'과 '제너홀'을 개원한다. 행복한 마을은 경남 거창군 남하리 대야리에 1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된다. 행복한마을은 2006년 촌장 은산 스님이 창건한 행복한절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동체 마을로 이번에는 스님들의 수행처를 만드는 불사다.

이와 함께 재가자를 위한 휴식공간 휴심정(休心庭)도 내년 중 완공된다. 행복한마을의 재가자 공간은 이미 부산에도 마련돼 4가구가 함께 모여 살며 수행 중이다.

최근 수많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계획공동체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미국에만도 2000여개 공동체가 등록해 있으며 미국 외에도 4000여개에 달하는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의 형성은 개인주의의 확산의 반대급부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행복하기 위함이다. 인류의 삶을 보면 공동체 생활은 큰 장점을 띈다. 부처님도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한 후 수행공동체를 형성했다. 그 이유는 삶, 특히 수행에서도 상호부조하며 정진하는데 공동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불교에 있어서 수행공동체는 일종의 새로운 불교를 위한 씨앗이다. 수행공동체는 기성의 불교가 지닌 개인화된 기복문화에 치우진 단면을 탈피하여 새로운 수행, 정진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수행공동체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 시작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 행복한 마을은 10여년 동안 이미 자리잡은 수행공동체다. 행복한 마을의 행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수행공동체들이 봄에 새싹이 움트듯 새롭게 탄생되길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